

한국사 문제 7월15일

1.(가) 정부가 집권할 때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

(가)는 성격상 과도내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여·야 합의로 짜인 민주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임무였다. 이 내각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적극적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. 그들은 대체로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인기나 또는 조직화된 정치세력 기반 구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인사들이었다. 이것이 이 내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. 즉 직업정치인이 아니며 정치영역에 기반이 없으며 혁명정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진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갖지 않았다.

- ① 3·15 부정선거 처벌 소급특별법 제정 개헌안을 통과시켰다.
- ② 농어촌 고리채 정리 단행을 실시하였다.
- ③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.
- ④ 대통령 등 구파들이 신당을 창당하였다.
- ⑤ 양원제 개헌안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.

2. 자료에서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

(완성 74p 06번)

황제가 말씀하시기를, "전차가 운행되면서 다치고 죽는 백성이 많다고 들었다. 매우 놀랍고 참혹한 일이다. 내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제금을 넉넉히 주어 나라가 불쌍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라……다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거듭 타일러라." 라고 하였다 (이 달 17일에 운행을 시작하였는데, 26일에 다섯 살 난 아이가 종로 거리에서 깔려 죽었다……그래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.)

- ① 명동성당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천주교신도
- ② 밤이 되자 경복궁에서 전등이 반짝이는 모습
- ③ 월각사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서민
- ④ 제국신문을 읽고 있는 부녀자
- ⑤ 원산학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남학생